

WHAT'S UP, OITA!

왓츠업, 오이타!
2022년 11월(제77호)



에디터 : 노지영 (pu-no314@pref.oita.jp)
오이타현 기획진흥부 국제정책과 국제교류원

숲을 키우고 지키기 위해 함께 노력해요

제45회 전국 숲 가꾸기 행사 개최



지난 12일과 13일 이틀간 제45회 전국 숲 가꾸기 행사(全国育樹祭)가 오이타현에서 열렸습니다.

‘전국 숲 가꾸기 행사’란 숲을 지키고 가꾸어 미래 세대에게 물려주어야 할 책임을 알리고자 매년 가을에 개최하는 전 국민 참여 자연 행사입니다. 올해의 주제는 ‘자연이 풍부한 오이타, 푸른 숲을 가꾸어, 숲과 함께 살아가자(豊かなおいた 森林を育み 木と暮らし)’로 지난 1977년에 벳푸시에서 열린 제1회 행사 이후 현 내에서의 두 번째 개최였습니다. 이번 숲 가꾸기 행사에는 후미히토(文仁) 왕세제 부부가 참석하여 ‘제51회 전국 나무 심기 행사(全国植樹祭)’ 때에 아키히토(明仁) 전 일왕 부부가 심은 나무를 손질했습니다. 이 외에도 산림녹화(緑化)를 위해 오랜 기간 노력한 단체와 개인을 표창하고 숲 가꾸기 행사의 주제를 담은 노래 및 창작댄스 공연을 선보이며 행사 참가자에게 오이타 산림·임업의 매력을 알렸습니다.



유후 여행을 떠나신다면 주목!

유후시 관광 정보 유후시 由布市

오이타현 중앙에 위치하여 많은 한국인 관광객이 찾는 유후(由布)시에는 다양한 관광 정보를 안내해 드리는 ‘관광객 인포메이션 센터’, 전기 자동차 ‘노루쿠’ 등이 마련되어 있어 편리하게 여행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 유후 여행을 떠나신다면 주목하세요!

유후시 관광객 인포메이션 센터 (由布市ツーリストインフォメーションセンター)



JR 유후인역 옆에 위치, 쓰지 마차·노루쿠 등을 예약할 수 있으며 2층 전망 데크에서 보이는 유후다케 산이 장관.

그린 슬로우 모빌리티 ‘노루쿠’ (グリーンスローモビリティ「ノルク」)



시속 20km 미만으로 달리는 친환경 전기 자동차로 유후인 역~플로라 하우스 온천~우나기히메 신사를 지난다.

유후인 아침 안개 (由布院の朝霧)



큰 일교차·바람이 불지 않는 겨울엔 유후인에 머물며 분지가 안개에 둘러싸이는 경관을! (자코시(蛇越) 전망대 추천)

유노히라 온천 (湯平温泉)



온천으로 병을 고치기 위해 에도 시대부터 많은 이들이 찾은 이곳에서 정성껏 만든 ‘유노히라 아이스크림’을 맛보자.

WHAT'S UP, OITA!

왓츠업, 오이타!
2022년 11월(제77호)



에디터 : 노지영 (pu-no314@pref.oita.jp)
오이타현 기획진흥부 국제정책과 국제교류원



단풍과 함께 즐기는 스릴 만점 놀이공원!

기지마 고원 파크 벳푸시 別府市

예전에 후쿠오카 출신 친구가 자신이 제일 좋아하는 놀이공원이 오이타현에 있다고 해서 이유를 물으니 ‘놀이 기구가 스릴이 넘쳐 재미있다’라고 한 적이 있다. 오호라, 그렇다면 스릴 넘치는 분위기와 거리가 먼(!) 하모니 랜드와는 완전히 다른 매력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2022년 5월호 참고) 언젠가 가 봐야겠다 싶었다. 하지만 용기가 부족한 나로서는 혼자서 놀이공원에 가는 일이 어렵게만 느껴져 기회가 없던 찰나, 이곳이 벳꽃과 단풍 명소로도 유명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단풍이 한창인 11월에 영국 교류원과 함께 다녀오게 되었다.

오늘 소개할 이곳은 벳푸시에 있는 놀이공원 ‘기지마 고원 파크(城島高原パーク)’로, 벳푸역에서 버스를 타고(약 40분 소요) 갈 수 있어 접근성이 좋다. 취재날에는 평일 개장 시간에 맞추어 방문한 덕인지 손님은 초등학교 단체와 가족 몇 팀 정도로 한적하니 그리 붐비지 않았다. 이용 요금은 입장권만 구입하여 타고자 하는 놀이 기구별 요금을 별도로 지불하거나, 자유 이용권(のりものパス券)을 구입하는 방법이 있지만 개인적으로는 자유 이용권 구입을 추천한다(이 놀이공원의 하이라이트인 롤러코스터 ‘주피터’의 요금이 1000엔이기 때문...). 생일 자 할인이나 인터넷 사전 티켓 구매 시 조금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으니 관심이 있다면 홈페이지를 참고해 보길 바란다(일본어).



그렇게 입장한 11월 어느 날의 기지마 고원 파크는 듣던 대로 정말 노란 은행잎과 빨간 단풍잎으로 울긋불긋 물들어 있었고, 새파란 하늘과의 조화가 너무 아름다웠다. 개인적으로 어렸을 때는 살던 지역에 놀이공원이 있어서 자주 놀러 갔지만, 성인이 되고 나서는 그럴 기회가 잘 없었기에 오랜만에 놀이공원에 방문했다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신이 났다. 또한, 놀이 기구의 종류나 생김새도 너무나 비슷한 점이 많아 처음 방문한 곳이지만 왠지 모르게 추억 속의 장소에 온 듯한 기분이 들었다.



사실 이곳은 지금까지 몇 번인가 새 단장을 하긴 했으나 1967년에 오픈한 아주 역사가 깊은 곳으로 1992년에 만들어진 일본 최초의 목제 롤러코스터 ‘주피터’가 유명하다. 하지만 주피터 이외에도 30종이 넘는 다양한 놀이 기구가 있어 즐길 거리가 가득하며, 시기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 평일 기준 약 4시간 동안 9종류의 놀이 기구를 줄을 서지 않고 탈 수 있었다(위 시간은 아주 천천히 여유를 부린 것으로 부지런하게 움직인다면 더 탈 수 있을 것).

WHAT'S UP, OITA!

왓츠업, 오이타!
2022년 11월(제77호)



에디터 : 노지영 (pu-no314@pref.oita.jp)
오이타현 기획진흥부 국제정책과 국제교류원



직접 타 본 놀이 기구 중에 재미있었던 것을 몇 가지 추천하자면 ①슈퍼 L&S 코스터(スーパーL&Sコースター) ②고 카트(ゴーカート) ③드래곤 코스터(ドラゴンコースター) ④목제 코스터 주피터(木製コースタージュピター) ⑤웨이브 스윙어(ウェーブスウィンガー) 정도인 것 같다. 참고로 나는 무서운 놀이 기구를 아주 잘 타는 사람이 아니기에 쉬엄쉬엄 즐겼고 모두 적당한 정도의 스릴이었다. ①은 두 번이나 탔는데 경*월드에 있던 추억 속의 롤러코스터가 생각나 더욱 즐거웠다(웃음).



②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신기하고 재미있었다. 범퍼카를 생각하고 탑승했더니 웬걸, 갑자기 1km 정도 되는 코스를 실제 가속 페달과 제동 장치를 밟으며 직접 운전하라는 것이 아닌가. 정말 깜짝 놀랐지만 막상 타고 보니 유유히 바람을 맞으며 차를 타고 달리는 게 꽤 기분이 좋았기에 추천한다. 1인승과 2인승 카트가 있으며 키 135cm 미만은 1인승 카트에 탑승할 수 없으니 아이 동반이라면 2인승 카트를 타면 되겠다(조수석 탑승자 키 제한 없음).



마지막으로 이곳의 하이라이트인 주피터 탑승 솔직 후기를 전하고자 한다. 에*랜드의 한 롤러코스터를 연상시키는 주피터는 앞서 말했듯 평일에 방문한 덕인지 전혀 줄을 서지 않고 탈 수 있었다. 30년이 넘은 이 롤러코스터, 물론 안전하고 탑승 시간은 2분 35초로 매우 짧지만 정말 정~말 많이 흔들려서 무섭기 때문이 아니라 어지러워서 한 번으로 충분하다 싶었다... 그래도 기지마 고원 파크의 명물이니 타 보길 추천하며 맑은 가을날에 다녀온 즐거웠던 기지마 고원 파크 방문기를 마친다.



기지마 고원 파크

(城島高原パーク, Kijima Kogen Park)

- 주소 : 別府市城島高原123(〒874-8666)
- 문의 전화 : 0977-22-1165(일본어 대응)
- 운영 시간 : ※휴일 및 시간에 변동이 있으므로
사전에 홈페이지 캘린더 확인 요망
(<https://www.kijimakogen-park.jp/calendar/>)
- 입장료 <입장료> 성인 1500엔 / 어린이 600엔
<자유 이용권> 3300엔
<통합권> 성인 4800엔 / 어린이 3900엔
- 놀이기구별 요금
 - 슈퍼 L&S 코스터 : 600엔
 - 고 카트 : (1인승) 400엔 / (2인승) 800엔
 - 드래곤 코스터 : 300엔
 - 목제 코스터 주피터 : 1000엔
 - 웨이브 스윙어 : 300엔

WHAT'S UP, OITA!

왓츠업, 오이타!
2022년 11월(제77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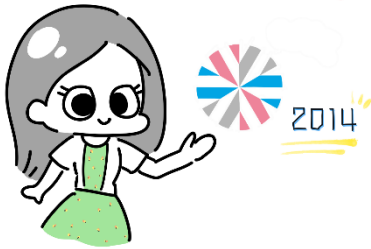


에디터 : 노지영 (pu-no314@pref.oita.jp)
오이타현 기획진흥부 국제정책과 국제교류원

노지 in 오이타

21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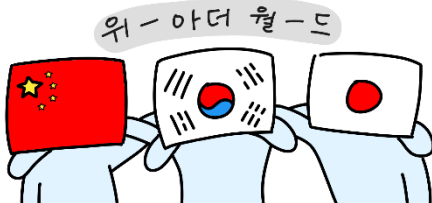
<특집> 동아시아 문화도시.1



지금으로부터 8년전,
전남 광주에 살던 고등학생 2학년 때
학교게시판에서 한 모집 공고를 보았다.



"동아시아 문화도시 청소년
한중일이 함께하는 교류 행사의
참가자를 모집한다는 내용이었는데



당시 일본어를 공부하던 나는
외국인 친구를 사귄다 싶으리라 기대하며
바로 지원했고 당당히(!) 선발되었다.



활동 내용은 한중일 청소년이
일본 요코하마에서 4박5일동안 함께
문화를 탐방하고 교류를 하는 것으로



2014 요코하마 트리엔날레
모래 조각상 만들기



야마시타 공원
보며 어드벤처 (보물찾기)

일본어를 배우던 나는 말이 통한 덕에
훨씬 더 즐겁고 진실된 교류를 한 것을 계기로
국제교류에 관심을 가지게 됐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국제교류원이 된 나는
운명처럼 2022 동아시아 문화도시로
오이타현이 선정됐다는 소식을 접한다.



2
지금의 저를
만들었다해도
과언이 아닐만큼
소중한 추억이에요!